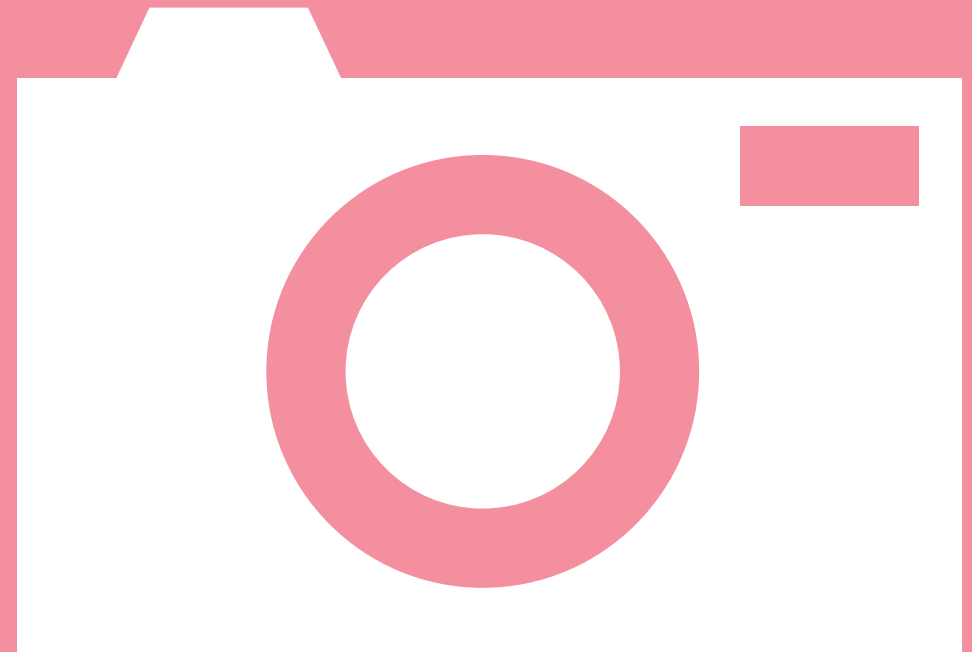


7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지원합니다.]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든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럴진대, 혁신에 대한 어쭙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에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

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낼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밀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 포함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 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은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든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럴진대, 혁신에 대한 어쭙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에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

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낼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밀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하나

## 의제 이해하기

###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7P

의제 실행 방안 19P

###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21P

실행주체 소개 22P

둘

##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5P

###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7P

의제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57P

03. 의제 실행 71P

셋

##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77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81P







하나

청년

# 의제 이해하기

##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7P

의제 실행 방안

19P

##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21P

실행주체 소개

22P

취업



01 의제소개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지원합니다.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취업준비생은  
많은 것이  
부담스럽다.

면접관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지원자의 첫인상은 취업 사진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청년은 본격적인 취업 준비 전부터 면접 사진을 찍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이 외에도 자격증 취득, 면접 복장구매, 교통비 및 스튜디오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청년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취업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지역 경기 또한 마비되었습니다.

정부도 여러 정책으로 청년취업에 많은 시간을 쏟아내는 만큼 지역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공공기관, 산학 등과 협력을 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취업의 심각성을 느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한국장학재단, 더컴퍼니 씨협동조합과 함께 의제제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겪을 취업의 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이 원하는 일을 갖게 되면서 웃음 가득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응원을 ‘웃는 내.일.’에 담아 표현한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지원 의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가  
뜻을 모으다.

의제 추진을 위해 7번의 협업테이블을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와 실행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구 동구 내 소재한 공공기관과 청년 사업장이 협업을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구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상생의 길을 도모하였으며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의 대구 내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대구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공유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팝업(간이식이동)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유모델도 함께 제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계획과 일정을 수립한 후 사진관에 필요한 물품구비 및 유휴공간 내 스튜디오를 조성하였습니다. 협업 가능한 유휴공간 리스트를 작성하여 연계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한국장학재단 내 유휴공간인 1층 북카페(51평)의 공간을 청년 공유공간 및 팝업 스튜디오공간으로 조성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웹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협업단체 홍보 채널과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작은 날갯짓이  
불러올 큰 희망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본 의제 실행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 준비 장기화 속에서 취업 준비 비용 지원과 청년들에게 취업 및 사회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 중 하나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자원을 촉진하였습니다.

총 4개의 주제(공공기관 선입사자와의 만남, 유튜브 채널 강의, 청년유니온과 연계한 대학생 알바 노무 상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로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내 공간 및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선입사자들과 소셜다이닝을 할 수 있는 멘토 식탁과 같은 청년 공유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총 9회의 청년 사진관 월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구직 청년 85명에게 취업 증명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 의제 실행 방안

#### 1. 민관협업단체를 발굴하여 연계 가능한 월별행사 기획 및 운영

- ① (사)대구시민센터: 청년NGO Pre-Job 성과공유회와 연계
- ② 동구청년센터(the꿈: 멘토식탁(先)입사자 소셜다이닝)과 연계
- ③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유튜브 강좌, 청년노무상담, 선(先)입사자 멘토링 등 연계
- ④ 학교밖청소년 합창단 프로필사진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진로희망자 사진 촬영

#### 2. 협업 가능한 유휴공간에 '청년사진관'을 조성

- ① 한국장학재단, 혁신공간 '바람'. 소셜캠퍼스 온 대구의 유휴공간 및 공유공간에 '청년사진관' 조성

#### 3.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청년사진관 운영

- ① 행사에 필요한 보조 인력(진행요원)을 상황에 따라 운영
- ② 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진행
- ③ 지역 청년 전문인력(사진사, 사진보조 등)과 계약하여 운영



9월 25일 영남대학교 1회차



9월 25일 영남대학교 1회차



10월 29일 학교밖청소년합창단



11월 10일 영남대학교 4회차

### 실행계획 (추진일정별)

- 6~9월**
  - 설립추진 협업테이블 진행
  - 협업테이블**
    - 컨퍼런스 의제협업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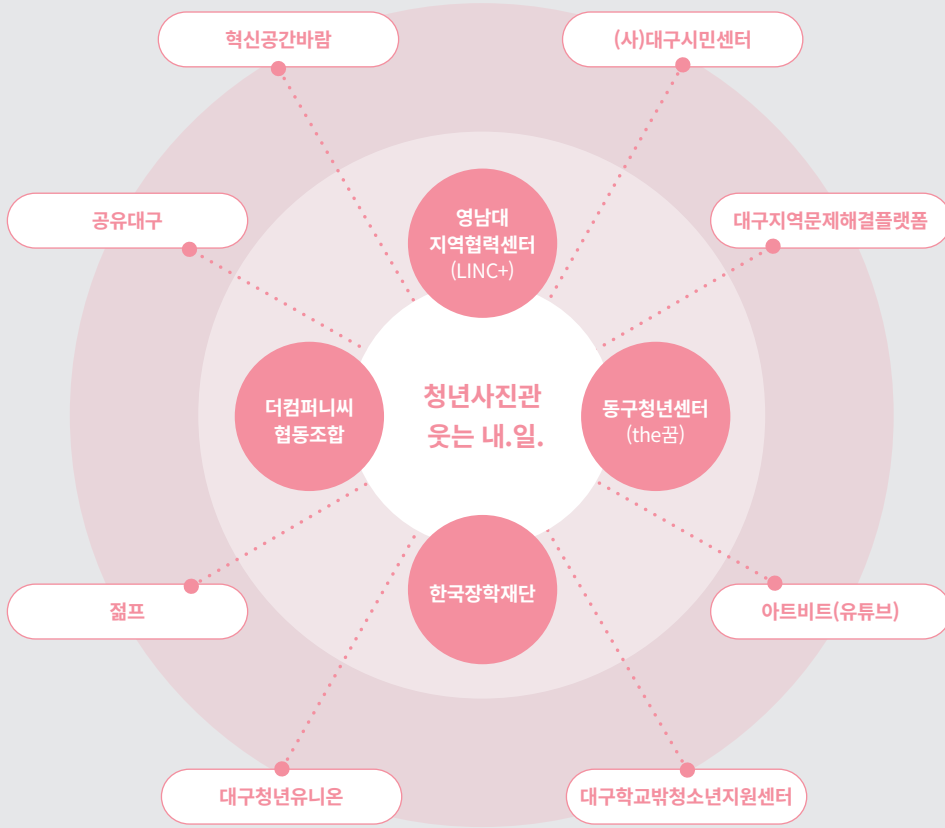
- 7월**
  - 2020 온라인 대구 의제포럼
  - 온라인 "청년" 의제포럼**
    - 내용: 청년사진관 의제실행 공론화

- 8월**
  -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 장소: 온라인채널 (Zoom, Youtube)
    - 내용: 청년사진관 의제실행 고도화

- 8~12월**
  - 청년사진관 팝업스튜디오 운영
  - 청년사진관 운영**
    - 내용: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프로필 사진 촬영
    - 장소: 한국장학재단 1층 북 카페
  - 8월: 청년 청년NGO Pre-job 상반기 성과공유회
  - 9월: 유튜브 창업 및 영상 제작 강의
  - 10월: 멘토식탁(先)입사자&구직 청년
  - 11월: 청년NGO Pre-job 하반기 성과공유회
  - 12월: 청년알바돌봄

- 10월**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사업
  - 역량강화 워크숍**
    - 1부 - 문제정의(강의·실습)
    - 2부 - KPI(성과지표)강의 및 실습: PDM

## 02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연 번	조직(단체)명	역 할	비 고
1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등	
2	한국장학재단	기관 내 유휴공간 제공, 네트워크 지원	1층 북카페(51평형)
3	대구청년센터(the꿈)	사업의 활동주체	청년 참여수 : 20명
4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사업의 활동주체	학생 참여수 : 23명

## 실행 주체 소개

1

### 더컴퍼니씨협동조합

#### 설립목적

문제해결주체 발굴·연결 및 영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비전

공공·기업·민간 주체들을 연결하여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일하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주요사업

- '청년사진관' 의제실행(한국장학재단, 영남대학교 등 협업)
- 소셜벤처·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
- 지역사회 혁신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 디자인씽킹 및 사회혁신 교육

2

### 한국장학재단

#### 설립목적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

#### 비전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 주요사업

-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수행
-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사업 수행
-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재단체 발행 및 운용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재원을 위한 기부금 모집, 관리
-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등의 설치, 운영

3

### 대구청년센터(the 꿈)

#### 설립목적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커뮤니티활성화, 취업 역량강화, 사회참여 역량강화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꿈을 더해주는 대구지역 청년 성장허브

#### 주요사업

-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커뮤니티 지원 및 정책제안 공모
-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강사 운영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창업 및 소규모 멘토링 지원
- 취업 취약청년 발굴을 위한 청년 희망 멘토링
- 디자인씽킹 및 사회혁신 교육

4

###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 설립목적

지역 간 격차 해결을 위해 지역의 수요와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

#### 비전

지역사회의 가치를 발굴 및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여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

#### 주요사업

- 지역사회혁신단체 (사회적기업, NPO, NGO 등)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제 실태 조사 및 파악을 위한 지역 조사, 탐방단 공모
- 지역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대학생-차세대 아카데미 운영
- 생활실험실(리빙랩) 및 사회혁신기(소셜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역사문화콘텐츠 조사 및 기록 후 문화콘텐츠 가공
-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5P

##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7P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57P

03. 의제 실행 71P



#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 사업추진방식 논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공간 탐색  
민간협업단체 사업연계)

**1단계**

6월 16일

**1차 협업테이블**  
한국장학재단, 동구청년센터(the꿈)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7월 2일

**2차 협업테이블**  
한국장학재단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7월 15일

**3차 협업테이블**  
동구청년센터(the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7월 16일

**4차 협업테이블**  
동구청년센터(the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 사업추진 세부내용 논의**

**2단계**

7월 22일

**5차 협업테이블**  
대구청소년지원재단, 한국장학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7월 28일

**온라인 “청년” 의제 포럼**  
발제: 김요한(대구청년정책과장), 조영태(청정넷 분과장)  
참여: 한국장학재단, (사)대구시민센터, 동구청년센터(the꿈)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더컴퍼니씨협동조합

8월 3일

**6차 협업테이블**  
우종우, 정다운(사진작가)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8월 5일

**7차 협업테이블**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8월 27일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참여: 한국장학재단,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동구청년센터(the꿈), (사)대구시민센터,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구시 청년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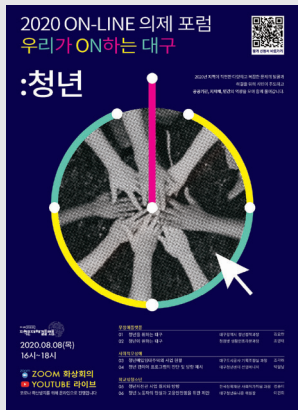
10월 15일

**역량강화 워크숍**  
더컴퍼니씨협동조합, 한국장학재단  
동구청년센터(the꿈)



02 논의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 ON-LINE 청년 의제 포럼



개요	일시 : 2020년 7월 28일 (화) 16:00~18: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참여자 : 6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사)대구시민센터 한국장학재단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동구청년센터(the꿈)	강근모 센터장 권준열 팀장 유가영 매니저 정송이 과장 최범순 센터장 황대연 팀장
기록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지환 매니저

발언기록

권준열 팀장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이 방에서 다룰 의제는 청년 사진관 웃는 내일입니다. 올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신규 의제로 시작하는 청년 사진관 인데요. 작년에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 정책 제안을 착안해서 올해 한국 장학재단과 협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청년 사진관의 중요한 실행 주체 주체로서 한국장학재단의 큰 역할이 있었고요. 그 올해 오늘 그 발제를 할 때 한국장학재단의 정송이 과장님께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제 및 토론을 하기 전에 몇가지 가이드 사항을 전달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이 설명을 했는데 한번 더 안내 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발언의 마이크는 그 좌측 하단에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화면 미리 음양의 문제가 많이 생길 시에는 화면에 x 자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그 도움을 어떤 부분인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발언은 보통 저희가 제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혹여나 중간에 발언을 하고 싶은 부분 또 어떤 부분 첨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발언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진행을 안하고 바로 발언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보통은 저의 진행에 따라 이 토론이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 오디오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혹 겹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발언자가 끝난 다음에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중의 저희가 아카이빙 목적으로 화면 캡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제 포럼에 발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정소민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준비하신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발제하면 공유 하시고요.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송이 과장 한국장학재단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미래혁신부 사회적가치 팀의 정송이입니다.  
저희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나 혹은 20대 초 중반 정도의 사람들이 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기관 인데요. 저희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서 누구나 공부하려는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의 진출하게 되는데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장 했을 때의 청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저희는 학생까지 지원했던 것에서 나아가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청년 사진관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하는 청년 사진관 웃는내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자금 지원으로 인재육성이 목적인 우리 재단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청년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돕는 방법이 뭘까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사실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청년이 사회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은 청년들이 혹은 학부모들이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많은 잠재적인 고객들이 그러한 부분들까지의 필요도 말씀해주시고 그러한 요구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필요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구요.

그때 기존의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형 기숙사나 취업연계장학금 사업은 취업과도 연계되어 있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사업이기도 한데,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데 저희는 이미 기존의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예산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 요인이 존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하지 않고 다른 민간과 협업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고민하게 된 것이구요.

그 사업에서의 가장 착안이 됐던 사항은 우리 재단을 말씀드렸던대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나 고등교육,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지만 있다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데 계기가 있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도권 내 합동 지원을 하던 우리 기관이 제도권 밖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봉사문화체험을 지원하면서 제도권 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까지 포함한 지원으로 학자금지원 혹은 인재육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하고 제도권 내가 아니라 제도권 밖까지 볼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앞으로 고등 교육과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가 생기는 사람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이라는 대상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하고 고민하기 시작해보니까 취업준비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된다는 기사들도 있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많은 고민들을 접하게 됐을 때 취업을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필요한 것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취업용 사진촬영 하는데도 꽤나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개천에서 취업 용이 날까, 돈 없으면 취직도 힘들다." 취업 사진이 뭔지, 취준생과 동네 사진사는 울상이다." 이러한 기사들도 이 사업을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과 함께 하니가 함께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혹은 지자체가 혹은 시민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청년사진관은 매우 간단하고도 작은 사업일 수 있는데, 우리 재단은 시설을 개방하고 청년들은 여기에 와서 사진을 찍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진에 찍으려면 사진기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여러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서 드는 비용은 협업하는 기관들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재단은 순수하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저희 기관이나 타기관에 먼저 입사했던 선배들을 통해서 취업할 때 어떤 것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팁들을 전해주는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고 좋은데 청년 사진관 웃는 내일입니다. 취업이나 창업,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취업용 사진촬영을 지원하는 사진관입니다.

나의 좋은 일을 바라는 청년의 마음,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청년에게 전하는 응원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 재단은 북카페를 지원하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민간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은 각각 행정 총괄이나 사진 촬영 의상을 대여하는 것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역 인재들이 앞서 다른 분들이 발제하신 것처럼 대구에 살고 싶은데 대구를 떠나야만 하는 문제들이 지역에 남아서 좋은 직장 취업할 때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돕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의 전문 인력을 참여 시키는 데에 사진사나 사진 보조를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어서 떠서 간접적으로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를 그냥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우리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재단에서 어떠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지역 상생,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들으시면 꽤 간단하고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고 혹은 사진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결과물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고 즐겁고 가시성이 있는 즐거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기라는 것이 조명이 필요하고 여러 장비가 필요한 것은 많은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동이 쉽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혹은 다른 기관들과 다른 장소에서 협업할 수 있는 여지도 꽤 많은 확장성이 엄청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제도권 내와 제도권 밖을 고민했던 것처럼 이전에 것들을 버리는 것 바꾸는 것에 대한 착안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공공 기관이나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은 이전에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완전히 바꿔서 만드는 것이지만 그 혁신은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려면 그것의 계기가 되는 아이템들이 감성적인 것 혹은 진정성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해 왔는데 또 어쩌면 물질로 지원해 왔던 것이지만 앞으로는 진정성 있는 지원 활동이나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들에서도 혁신을 꿈꾸고 또 그렇게 바꾸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보유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북 카페에 평수가 40평이 조금 넘는데, 사실 한국 장학재단은 혁신도시에 위치하지 않고 동구에 있는 신암동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은 좋지만 건물은 좀 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간들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어쩌면 혁신에 필요한 감수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아이템을 통해서 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함께 와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오늘보다 내일 더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준열 팀장

#### 더컴퍼니씨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사진이라는 작은 매개가 가볍고 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저는 가볍고 간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협업하기에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볍게 시작해서 그것이 더 확장되어 가면 그게 더 큰 열매로 또 결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아이템일 수 있지만 이 아이템이 지역사회의 또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토론은 제가 질문에 따라서 진행 될 텐데요 질문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유가영 매니저님 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황대연 팀장님 그리고 최범순 교수님, 강근모 센터장님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질문 할 때는 또 이 순서로 가 되, 중간중간에 발언이 더 필요하시거나 아까도 말했듯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질문이 다 끝나면 정송이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유튜브라이브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대구시민센터의 유가영 매니저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저희 사업은 9월부터 계획을 했지만, 8월부터 먼저 계획과 준비 및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대구시민센터의 청년 프리 잡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가영 매니저님께서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개인 소개를 해주시고, 청년 사진관과 결합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가영 매니저

#### (사)대구시민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사)대구시민센터의 청년 프리잡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매니저 유가영입니다.

먼저 저희 청년 프리잡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대구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 ngo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상반기 각각 10명씩 총 1년의 20명의 청년들이 각 관심 있는 분야의 단체에서 5개월 간 활동을 하면서 ngo를 통해 사회참여를 경험하고 청년들이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청년 프리잡 사업이 청년사진관과 협업하는 기관 중 첫 번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청년프리잡 지원 사업이 상반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8월 13일 청년 사진관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의 활동은 14일에 마무리 되다 보니까 활동종료 후에 다시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취업만큼이나 부담인 것들이 취업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증 취득비, 면접교통비, 취업스터디비용, 면접의상구입비, 취업사진비용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담감을 조금 덜어 주기 위해서 청년프리잡 지원 사업에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프리잡 지원사업에서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시도로 취업사진 비용을 지원하고자 청년사진관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준열 팀장

####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황대연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황대연 팀장님 자기소개와 또 지금 현재 동구청년센터(the 꿈)와 결합하게 되어있는 멘토 식탁과 관련한 사업 소개와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연 팀장

### 동구청년센터(the꿈)

네 안녕하세요. 저는동구청년센터(the꿈)의 팀장 황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동구청년센터(the꿈)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고, 2019년 5월 7일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불로동의 임시센터로 운영을 하였지만 현재는 동구 율하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건물의 같이 거주하면서 이제 강의실이나 체력 단련실 요리제빵실과 같은 시설들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청년센터(the꿈)는 이제 '청년들의 꿈을 더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청년들의 진로 또는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년사진관 함께 하게 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멘토 식탁 인데요.

멘토 식탁은 청년제안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청년 제안으로 시작되었다가 청년들에게 이런 취·창업 분야의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이랑 멘토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진로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름처럼 컨셉은 멘토와의 한끼 식사 입니다. 기존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다소 형식적이고 딱딱하여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회원들이 한 3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차별성을 위해, 저희는 식탁위에서 멘토와 다른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으며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컨셉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멘토 식탁은 저희가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고 사전 조사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명의 멘토분들과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한 멘토와의 식사를 청년사진관과 함께 운영할 예정 이구요.

아무래도 저희 센터가 취·창업 역량 강화에 포커싱이 되어있는 센터이다 보니 청년사진관 웃는내일 이라는 곳에서 이력서 사진을 촬영하고 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며, 공공기관의 신입사자와 청년 구직자들을 멘토-멘티 관계형성의 기회를주는 것에서 저희 센터와 아주 취지가 부합하단 의미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역의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의 입사를 원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의 수요도 해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저희 동구청년센터(the꿈) 입장에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준열 팀장

###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사진관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으로 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해, 한 번 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크게 되어 갈 수 있는. 또 연계가 청년을 넘어서 학교 밖 청소년과 소외계층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영남대RCC센터의 센터장님이시면서 또 교수님인 최범순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와 지금 계시는 영남대 RCC센터의 소개 그리고 청년사진관과 연계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범순 센터장

### 영남대학교지역협력센터 (LINC+)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문과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최범순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평소에 교육하고 연구하는 문과대학 속에 일원이라기보다는 대학의 장면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영남대학교의 지역 협력 센터를 설립을 해서 작년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구요. 그런 연장에서 오늘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남대학교지역협력센터(LINC+)라고 하는 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가장 크게 보면 대학에서 지역협력센터 이거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기여해야한다. 기여하고자한다”는 어떤 그런 지향 목표를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에는 아직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2008년에 대구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시간과 달리 2008년부터 대구에서 지내며 계속 쌓여 왔던 문제의식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유연히 기회가 되어서 대학의 지역 협력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학이 지역사회협력에 기여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문과 대학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어떤 역사 문화적인 측면의 협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역사 문화 관련 기록물들을 디지털화 한다거나 정리 한다거나 발굴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콘텐츠화하는 사업의 쪽을 진행하고 있고 이 파트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역사 문화라고 하더라도 폭이 굉장히 넓죠. 그 중에서 특히 영남대학교 지역협력센터는 그 다음에 묻혀왔던 역사적인 상처와 관련된 그런 기록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도 지역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서 가장 특수한 지역입니다. 원폭이라는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7만명에서 7만 5천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 원폭피해자들의 절대 다수는 경상도지역 출신입니다. 주로 합천인데요.

그런 분들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작년과 올해 계속 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내년에 걸쳐서는 한국 전쟁 70주년 인데요. 그 한국전쟁 과정에서 실은 적지 않은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가까운 곳에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도 약 3천 5백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도 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걸쳐 백서도 발간하고 여러가지 교육 콘텐츠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가장 힘을 쏟고 있구요.

또 하나는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 문화량 관련된 것들을 지역에 있는 우리 재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여 그런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이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인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해와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거기서 뭔가 여러가지 디자인이나 기획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교육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어떤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 교육 플러스 알파였던 경험치를 가지고 협력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자리가 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 대다수 주체를 학생이라고 했을 때 학생의 다른 말이 청년일 것이구요. 그랬을 때 청년 의제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오늘 의제인 청년사진관에 여러가지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사업단 내에서 이미 검토했고 결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대구청년유니온과도 MOU를 결함을 해서 대구청년유니온이 펼치고 있는 거리노동상담이라던가 기타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겠습니다.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기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준열 팀장

####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는 원래 대구 청년유니온에서도 참여하려 했지만 청년유니온이 저희 의제 또 다른 부분도 참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 드리고요. 다음에 강근모 센터장님 말씀 듣기 전에 여러가지 유튜브 라이브로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창으로도 이렇게 같이 공유 한 번 해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구요.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여러 소개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대구학교밖청소년센터에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강근모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청년 사진관은 취업을 바라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1차 했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청년을 넘어서 이 청년사진관이 큰 관점으로 더 확장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적 속에서 같이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지만 다양한 시도 또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서 청년만이 아닌 더 큰 많은 그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진이라는 매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고 관계라고 생각되어서 센터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동일하게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결합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근모 센터장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강근모라고 합니다.

### 대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권준열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설명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대구시 센터가 있고 8개구분 센터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남구에 창의센터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총 10 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의 나옴으로써 좀 소외된 그리고 사각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로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원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권준열 매니저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저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년과 어떤 연관점이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 19세 이상이 청년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일부는 청년의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청년 사진관에 참여를 하게 된 부분도 또한 우리 사업 중에 뭐 다양한 사업들을 이 있겠지만 먼저 그 한국 장학재단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좀 다양한 어떤 학습권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특히 이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합창단을 운영 하면서 어떤 공동체의식 뿐만 아니라 이런 합창을 통해서 본인을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는데 청년사진관에서는 이제 청년들은 주로 진로 취업에 대한 사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년사진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 합창을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친구들의 합창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가지 대회를 나갈 때 프로필 사진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송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청년 사진관과 연계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어떻게 보면 진로와 관련하여서도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진학으로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취업을 좀 더 잘 정착하고 그 취업을 더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뉴딜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연계된 사업장들에서 인턴십 과정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청년 사진관이 많이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찍음으로써 또 동기를 고취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제는 취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감을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청년사진관이 꽤나 높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준열 팀장****더컴퍼니씨협동조합**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소개와 결합 배경은 각자 다 그 담당자분께 분들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이제는 청년사진관이 이번 사업을 시작했지만 또 어느정도 구성이 다됐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내년에 더 큰 더 새로운 더 다양한 측면을 하는 하나의 시작을 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을 펼쳐 갈 수 있을지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순서를 기다리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손을 들어 주시고 손드시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그때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언은 맨 처음에 썼었던 유가영 매니저님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바로 내년에 바라볼 때 또 향후 사진관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이 부분을 확장하면 더 좋은 그림 또 더 좋은 사업, 좋은 연계가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가영매니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가영 매니저****(사)대구시민센터**

네 저희 청년사진관이랑 여러 협업그룹들 이야기들을 잘 들었는데 협업그룹마다 사진관과 결합을 하면 재미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제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청년사진과 취업사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함께 완성시킬 수 있게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첨삭 등을 도우면서 연계하여 이력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서류전형합격 패키지라는 느낌으로 가면 재밌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면접스피치 교육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에 생소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보면 재밌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준열 팀장****더컴퍼니씨협동조합**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 해주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혹시 황대연 팀장님 유가영매니저님께서 취업 관련한 학교 패키지를 아이디어로 내셨는데 여기서 좀 더 확장되거나 동구청년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황대연 팀장****동구청년센터(the꿈)**

서류전형 합격패키지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청년사진관과 같은 컨셉의 사업이 정기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 열린다는 걸 청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한국장학재단에 있는 그 1층 카페의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가면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되고 있으면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팝업 스튜디오처럼 한 달에 한 번정도 여니까 문제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대 청년들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이렇게 각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청년들사이에 정보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단순하게 갔을 때 사진만 촬영하는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가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멘토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7월에 멘토는 한국장학재단의 신입사원 분이시고, 8월에 멘토는 모 중견 기업의 어느 인사담당자 분이 오실 수도 있고, 9월의 멘토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일 하시는 분이 오실 수도 있구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매 달의 멘토를 정하고, 매 달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 멘토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것도 이제 청년들에게 자기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구요.

이제 서류전형합격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가 아무래도 취창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보니 취업 컨설팅이나 아니면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을 도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준열 팀장****더컴퍼니씨협동조합**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진관을 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 협업 기관 간의 다양한 콜라보였습니다.

1개 2개가 아닌 3개 까지도 가능한 영남대RCC센터, 청년유니온, 더 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등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아마 한 공간에 다 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분업해서 했을 때 더 전문적이고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범순 교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시는지, 또 아이디어 혹은 앞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첨언 등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범순 센터장**  
영남대학교지역협력센터  
(LINC+)

앞서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들 이미 이제 청년 사진관 자체가 명료하다고 할  
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청년사진관은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팝업  
이란 형태라든가 현실적인 여러가지 것을 고민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초점이 구직이나 취업, 어떤 사회 진입과정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데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다보니 지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더  
라고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약간 명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  
역 청년들의 현재의 모습, 고민, 어떤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공유의 장과 같은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진 한 장 그리고 나의 상황이라든가 나의 고민이라  
든가, “나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과 그 사진과 연결된 이야기를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모월 모시에 그 어떤 자기의 사진과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소셜다이  
닝 형태에 어떤 한 자리에 모여서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구체를 어떤 모델이 라든가 멘토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고요. 하지  
만 또 청년들의 진짜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연구하  
고 그런 것 들을 매년 기록하는 것도 재미있겠죠. 2020년 대구 청년들의 사진  
을 매개로 한 어떤 고민, 2021년 버전도 나올 수 있고 22년 버전도 나올 수 있  
구요.

그리고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것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욕심을 내면 이게 제도로 구현이 되  
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청년 사진관을 출발하지만 꿈꾸는 사  
진관 어떤 그런 형태의 여러가지 어떤 지역 청년들의 고민 혹은 심상 그런 것들  
을 들어보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도 추가가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구요.  
좀 더 큰 얘기를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체 청년의제랑 관련된 건 여유 시간이 되  
거나 할 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준열 팀장**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사진관 참 좋네요. 청년 사진관에서 웃는 내일, 거기서 또 꿈꾸는 사진  
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근모 센터장님께서 한번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년 사진  
관과 학교 밖 청소년과 연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더욱 확산하는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근모 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는데, 지금 청  
년사진관이 취업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능도 중요하  
겠지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청년 사진관안  
역할들에 참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년 사진관에 가서 직접 직업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보조  
인력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엔 지역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사업장과 연  
계를 한 인턴십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청소년들도 대구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과  
연결해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는 것이 청년사진관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준열 팀장**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질문들이 여러가지가 올라오긴 했는데 발언  
하신 분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뭐 그 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지역문  
제해결플랫폼 혹은 제가 속한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개 코너가 있으  
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내용으로 보강하면 좋겠다 생각  
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황대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즉 규칙적으로 댄스 때의 더 확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양한 유희 공간에  
서 확산되면 더 청년들이 더 접근하기 쉽지 않겠냐는 질문들이 있었고 또 하나

는 아동청소년부터 청년 장년 운영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연계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러한 부분의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함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남았지만 아까 최범순 교수님께서 아쉽게 발언을 다 못 하셔서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범순 교수님 아까 큰 얘기 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발언 다 못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범순 센터장

소중한 시간을 받았는데요.

#### 영남대학교지역협력센터 (LINC+)

사실 이제 김요한 과장님이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청년 전체에 대해 어떤 의제를 다루는 포럼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파격적으로 소셜캠퍼스 같은 것을 대구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가칭 소셜 캠퍼스 인데요. 기존의 대학이 여러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가지 너무 경직돼 있고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소셜 캠퍼스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오늘의 어떤 청년 의제들도 기획이 되고 교육이 되고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뭐냐면 결국은 청년 의제 오늘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커리큘럼이 된거죠.

예를 들어서 학과 지금 대학인 학과 명칭을 빌린다면 뭐 주거문제 해결학과 그리고 일자리문제 해결학과 그리고 지역에서 꿈꾸기 학과, 문화기획자, 도시기록자 어떤 여러가지 지금 의제들을 대학을 끝난다면 갭이라고 하는 어떤 쪽 지도 있는데 갭이라고 하는 형태를 대구형의 어떤 소셜캠퍼스라고 해서 거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민·관·산·학의 어떤 구성원들이 커리큘럼도 짜고 서포트도 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초반에 청년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 캠퍼스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돈이 문제죠. 저는 대구시가 파격적으로 등록금과 장학금 까지 다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계획이 아니라 최소한의 1년 2년 정도 지원을 해서요.

그리고 졸업자격은 그 자신이 고민했던 개인의 고민이나 팀의 고민을 졸업논문이 아니라 졸업 보고서 형태로 내면 대구시는 그 정책을 반드시 어느 정도 받아안아야 돼요.

지원을 하고 수행의 의무는 지는 대구시의 어떤 패러다임 이라고 할까 마인드와 같은 것들을 바꾸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은 직, 간접적으로 채용까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가지 좀 다듬어 가는 경험 속에서 지역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인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중요한 시간을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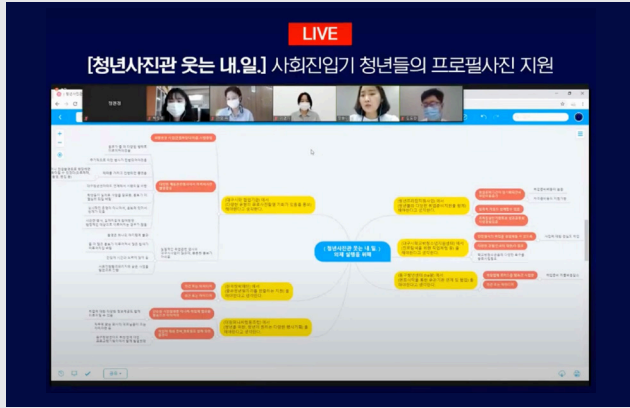
얼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준열 팀장

#### 더컴퍼니씨협동조합

꼭 들어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안 들었음 너무 아쉬울 뻔했는데요. 발언 감사합니다. 소셜 캠퍼스라는 것처럼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지금 의제로 온라인을 다양한 산발적인 의제가 좀 더 하나의 일회성이 아니라 보고서 형식에서 아예 정책까지 가는, 그랬을 때 민·관·산·학의 협업이 더욱 분명히 된다면 이것이 지역 문제 플랫폼이 하는 뜻과 취지와도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말씀이 좋고 또 그렇게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 의제실행선언식: 대구, ON-LINE으로 접속하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b>개요</b>	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 15:15~16: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b>참여자 : 5명</b>	동구청년센터(the꿈) (사)대구시민센터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구시 청년정책과	이연지 연구원 유가영 매니저 박정은 매니저 김도한 팀장 조은주 팀장
<b>기록자</b>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김진희 매니저

### 워크시트 내용

#### 이연지 연구원

대구 동구 청년센터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의제 실행을 위해  
 동구 청년센터(the꿈) 에서  
 멘토식탁을 통한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동구 청년센터는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
- 멘토식탁은 멘토와 함께 식사하며 자유로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업한다면 홍보 효과 획득과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준비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김도한 팀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에서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등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사진관을 통해 사진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턴 경험을 제공해 줘야 함.
- 이와 같은 다양한 진로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워크시트 내용

유가영 매니저  
대구시민센터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의제 실행을 위해  
청년프리잡지원사업 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취업준비지원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 역시 장기화되면서 부담비용 증가함.
-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박정은 매니저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의제 실행을 위해  
더컴퍼니씨협동조합 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이 원하는 다양한 행사기획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년사진관은 취업용 증명사진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
- 청년사진관 프로그램이 청년들이 원하는 행사로 이루어진다면, '취업용 증명사진 지원'과 '취업정보제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은주 팀장  
대구시 청년정책과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시와 협업기관 에서  
다양한 유형의 무료사진촬영 기회가 있음을 홍보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구시에서도 다양한 채용관련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취업지원과 관련된 행사들에 대해 더 다양한 형태의 홍보가 필요함.
- 청년사진관이 주기적으로 운영된다면 청년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 자유토론 내용 요약

**제안** 박정은 매니저  
더컴퍼니씨협동조합

- 조은주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취업 준비 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에 동의함.
- 실제 청년들이 취업준비지원프로그램에 무지한 경우 많음.



**답변** 정승이 과장  
한국장학재단

- 청년사진관은 상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힘듦.
- 청년사진관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이 필요함.

**질문** 정승이 과장  
한국장학재단

-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해 청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 청년들이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주로 어떤 계기로 참여하나요?



**답변** 조은주 팀장  
대구시 청년정책과

-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및 대구광역시 청년 센터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대구시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음.
-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사회진입활동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대구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겠음.

**질문** 이연지 연구원  
대구청년센터(the꿈)

- 박정은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사진관 외에도 취·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
- 현재 더컴퍼니씨 협동조합에서 기획 중인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박정은 매니저  
더컴퍼니씨협동조합

- 영남대학교와 협력한 청년사진관에서 장학재단 선입사자분들과 식사하며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음.
- 유튜브와 관련된 멘토링 프로그램과 청년들이 관심 있는 직무의 대표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중임.

**질문** 김도한 팀장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현재 청년사진관은 프로필 사진과 증명사진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를 웨딩촬영이나 컨셉 사진 등으로 확장시킨다면 유관한 일자리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답변** 유가영 매니저  
(사)대구시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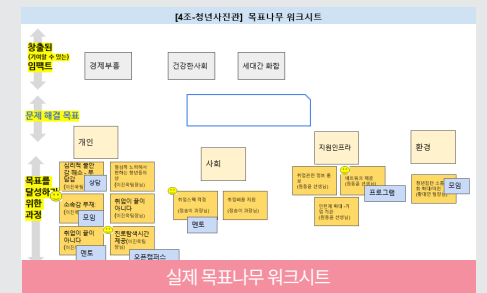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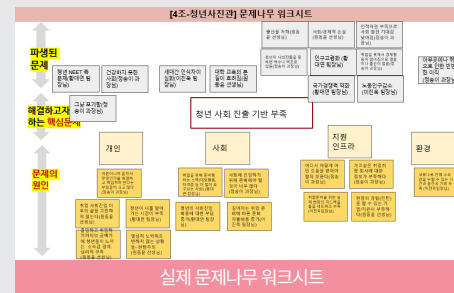
- 다양한 기관에서 청년의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 공통의 목표를 두고 협업합니다.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p><b>개요</b></p>	<p>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진행 : 대구 중구 태평로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2층</p>	
<p><b>참여자 : 4명</b></p>	<p>한국장학재단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동구청년센터 (the꿈)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p>	<p>정송이 과장          이진욱 팀장          황대연 팀장          원동윤 선생님</p>
<p><b>기록자</b></p>	<p>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김진희 매니저</p>	



### 워크시트 내용

#### 문제나무 워크시트

##### 파생된 문제

건강하지 못한 사회	세대간 인식차이 심화
청년 NEET족 문제	아무곳에서나 취직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퇴사
대학 교육의 본질이 흐려짐	국가경쟁력 약화
인구고령화	세대간 인식차이 심화
인적자원 부족으로 사회발전 기대감이 낮아짐	출산율 저하
노동인구감소	사회경제적 손실

#####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

청년 사회 진출 기반 부족

##### 문제의 원인

- |   |   |
|---|---|
| <p><u>1. 개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이내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많다</li> <li>- 취업 사회진입 이후 삶을 고민하지 않는다</li> <li>-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의 공백기에 청년들이 느끼는 소속감 결여, 심리적 부족</li> </ul> | <p><u>2. 자원 인프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디서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li> <li>- 취업준비를 위한 실제 현장의 피드백을 받을 네트워크 부족</li> <li>- 가고싶은 취업희망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li> </ul> |
| <p><u>3. 사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스펙이 많이 요구되는 사회</li> <li>- 청년의 사회진입비용에 대한 부담증가</li> <li>-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li> </ul>                             | <p><u>4. 환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해 소속감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기회가 부족</li> </ul>   |

1

#### 목표나무 워크시트

##### 문제 해결 목표

경제부흥      건강한 사회      세대간 화합

##### 문제 해결 목표

청년 사회 진출 기반 마련

#####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정

- |  |  |
|--|--|
| <p><u>1. 개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적 불안감, 부담감 해소 → 상담</li> <li>취업이 끝이 아니다 → 모임</li> <li>소속감 부재 → 멘토</li> <li>열심히 노력해서 변하는 청년들의 상 → 멘토</li> <li>진로 탐색기간 제공 → 오픈캠퍼스</li> </ul> | <p><u>2. 자원 인프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 제공 → 프로그램</li> <li>취업관련 정보 홍보 → 프로그램</li> <li>인턴제 확대 (기업지원)</li> </ul> |
| <p><u>3. 사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스펙 적정 → 멘토</li> <li>취업비용 지원</li> </ul>  | <p><u>4. 환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집단 소통 기회 확대(아련) → 모임</li> </ul>   |

3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협업테이블 1차



<b>개요</b>	일시 : 2020년 6월 16(화) 14:00 진행 : 한국장학재단 (동구 신암로125, 8층)	
<b>참여자 : 8명</b>	한국장학재단	강태욱 총무팀장 최동성 팀장 정송이 과장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오창식 본부장 이소영 단장
	더컴퍼니씨협동조합	권준열 팀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사업 추진 협의

- 사업방향
  - 1층 북카페를 팝업 스튜디오로 조성.
  - 증명사진(상위) 촬영 시 메이크업은 셀프.
  
- 지원 공간 및 이용가능 시간
  - 지하1층 다목적실 ① 09:30~11:30 ② 13:00~18:00
  - 1층 Book 카페 (16:00~21:00) - 사전 조율 가능 (재단 내 직원이용시간 제외)
  - ‘팝업 스튜디오 물품’ 보관장소는 본관 지하 1층에 보관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피드백
  - 재단 내 공간이 협소하여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성
  - 재단 내 보완으로 인한 요청사항
    - : 인터넷 사용이 안되며, PC 사용 시, 별도의 노트북을 사용
    - : 추진계획 된 비대면 회의공간 조성은 어려움.
    - : 출입통제가 있기에 고정명단이 있으면 제출바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를 수행을 담당할 방역책임자 선정 필요.
  
-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피드백
  - 본 공간(한국장학재단 본관)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접근성이 낮음.
  - 청년들의 생활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은 평일 18:00~20:00, 주말일정으로 진행됨.
  - 청년센터의 사업 중 입학식, 수료식을 연계하여 사업연계 가능
  
- 그 외,
  - 물품 구입 시, 가급적 사회적 기업으로 집행 예정
  - 정장 대여사업을 하는 희망옷장(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과 협의 예정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협업테이블 2차



**개요** 일시 : 2020년 7월 2일(목) 10:00  
진행 : 한국장학재단 (동구 신암로125, 8층)

<b>참여자 : 5명</b>	한국장학재단	오원교 팀장
		정송이 과장
	더컴퍼니씨 협동조합	권준열 팀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사업 추진 협의

- 지원공간(한국장학재단 본관 건물, 신암동) 추가 논의
- 1층 Book 카페 (16:00~21:00) - 사전 조율 가능
- 9층 강당, 빔 프로젝트 및 강의자 인터넷 가능 (그 외는 사용불가)
  
- 사업 추진의 협업기관 연계 확대 가능성
- 현재 대구청년유니온,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연계 가능
- 정송이 과장: 자체예산이 가능한 기관(단체)과 협업을 통해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 오원교 팀장: 올해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점진적 확대를 해보자.
  
- 추진계획 세부 논의
- 참여 인원(예상): 10-20명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모임예정)
- 예약신청: 개별 신청 및 협업단체를 통한 예약 운영
- 월별프로그램 관련: 향후 세부 실행계획(안) 공유  
(성과공유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
- : 공간사용에 대한 사전공지는 최소 1개월 전.
- : 월별행사는 월 1~2회 가능. (9층 강당도 가능)
- : 선(先)입사자와 만남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협업 조정(예정)

### 안건2.

#### [대구\_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회 확대에 따른 참여가능여부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으로서, “오원교 팀장” 참석 여부 논의
- 우장한 국장: 집행위원은 위원장과 달리 실무진으로 구성, 한 달에 한 번 모임 예정
- 오원교 팀장: 관련자료를 메일로 회신요청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협업테이블 3차

**개요** 일시 : 2020년 7월 15일(수) 15:00

**참여자 : 2명**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오창식 본부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청년의제 온라인포럼**
- 2020 청년의제 온라인 포럼 협업 사항
  - 청년의제포럼(7/28 화) 발제자 섭외: 대구 청년 정책의 방향
- 안건2.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 사업추진 상황 공유 및 연계방안
  - 희망웃장(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정장대여 대상자 확대 관련
- 안건3. 청년주거&청년갭이어**
- 사업추진 상황 공유 및 연계방안
  - 「청년 주거문제 연구소」 및 「청년 커뮤니티 빌라」 공간 조성 및 운영방안 자문
- 안건4. 사업고용협동조합**
- 사업추진 상황 공유 및 연계방안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협업테이블 4차

**개요**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14:00  
                              진행 : 대구시청 청년정책과 (중구 공평로 88)

**참여자 : 4명**

대구시 청년정책과	김요한 과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권준열 매니저
	안지혜 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소개**
- 2019년에는 이전공공기관, 지방 공기업과 시민사회와 연계 주력  
: 다양한 채널로 의제 수집하여 공공기관(인력, 장소, 예산 등) 연계
  - 2020년에는 청년의제포럼을 시작으로 청년사진관, 청년주거, 청년갭이어, 청년사업고용협동조합 등 추진 계획
- 안건2.**                   **2020년 청년의제 논의**
- 청년사진관: 청년정책과에서는 2021년 말 준공하는 서대구 청년행복기숙사에 공유사진관&희망웃장을 조성 할 계획. 2022년부터 운영 할 계획.
  - 청년주거: 의제 중 산격동(경대 북문)은 청년귀향프로젝트와 연계하면 좋을 듯. 의제 중 상인동은 '마을공동체' 의제로 추천.
  - 청년갭이어: 이 의제는 청년센터의 탄길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좋을 듯
  - 사업고용협동조합: 연계 가능부서(사회적경제과, 창업진흥과) 협업 추천  
: 진행이 늦어지면 국가정책과 겹칠 수 있는 우려  
: 추진계획대로 본 협동조합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되는 플랫폼 효과 기대  
: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청년 모집이 중요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협업테이블 5차



<b>개요</b>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10:00 진행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대구 중구 종로 45-4 3층)	
<b>참여자 : 8명</b>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근모 센터장 김도한 팀장 원동윤 선생님
	한국장학재단	오원교 팀장 백경준 주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사업논의

- 본 사업계획 공유
- 합창단의 추진 계획 공유
- 월별행사 중 '학교밖청소년 합창단'과 연계 방안 논의 (행사 일정 조율)
- 사업 추진관련 고려 사항
  - 촬영순서 (합창단 단복을 제작 - 촬영)
  - 합창단 온라인 발표회 진행 유무
  - 프로필사진 및 기타

#### 안건2.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논의

- 프로그램별 교육 인원 / 추진 가능 일정 / 섭외 장소
- 교육 인원 구성 방식
- 추진 가능 일정
- : 아래 일정을 제외한 모든 날 가능  
(8월 3일(월)~5일(수), 8월10일(월)~11일(화), 8월 18일(화))
- 교육 프로그램: 웹툰 / 크리에이터 / 포토샵
- 3개 주제 중 희망 수요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횟수 등 조정 가능(25명 \*4회 기준)
- 섭외장소(완료) :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201동),

- 한국장학재단의 역할
- 대학생 자원봉사자 결합 방안 논의 (보조강사 수요가 있을 시)

##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협업테이블 6차



<b>개요</b>	일시 : 2020년 8월 3일(월) 10:00	
	진행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 (대구 중구 종로 45-4 3층)	
<b>참여자 : 4명</b>	사진작가 및 보조	우종우
		정다은
	더컴퍼니씨협동조합	권준열 팀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재찬 매니저

## 논의 내용 요약

### 안건1.

####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사업논의

- 지원공간(한국장학재단 본관 건물, 신암동) 추가 논의
- 사업추진 일정 공유

일시		프로그램	협업단체
8월	8/13(목)	청년NGO Pre-job 사업 활동공유회 연계	(사)대구시민센터
	8/25(화)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사업 연계	한국장학재단
9월	사업 기획 중 (멘토링, 영상교육, 청년노무상담) ※내년 1월까지, 3~4회 진행(예정)		영남대지역협력센터 (LINC+)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과 연계(예정)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0월 초	멘토식탁(선)입사자&구직 청년) 연계		동구청년센터 (the꿈)
	청년알바돌봄 사업행사 연계		대구청년유니온
11월	청년NGO Pre-job 사업 활동공유회 연계		(사)대구시민센터
12월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성과공유회		한국장학재단

### 안건2.

####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사진작가 업무 협의

- 사진작가 업무 (2명)
  - 사진 촬영 준비 및 촬영 (1인당 촬영시간 5분 정도)
  - 사진 보정 및 인화 (1인당 보정시간 5분 정도)
  - 원본 사진 촬영자에게 전송 (당일 전송 가능여부)

- 청년사진관 : 웃는 내. 일 시범촬영

대상: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8명)

- 체크사항: 전반촬영, 여성정장 이미지 확보여부, 추가구비물품 체크, 그 외



## 03 의제실행

### 청년사진관, 청년이 웃는 내일을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1

#### 사업계획수립

취업준비 기간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한 민관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8월 13일, 한국장학재단 북카페를 활용한 청년 공유 공간 및 팝업 스튜디오 <청년사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팝업(Pop-up)은 ‘갑자기 생성되어 튀어 오른다.’ 뜻으로 IT용어로 현재는 문화적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용하여 “팝업 스튜디오”는 특정 시기에 예약에 따른 특별 행사로서 구축 및 철수하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기관·시민·청년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기획되었습니다.

2

####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팝업 스튜디오 조성

7월부터 <청년사진관>과 연계가 가능한 민관협업 단체를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업 가능한 한국장학재단, 혁신공간 바람 등 유휴공간에 <청년사진관>연계 가능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스튜디오 물품을 구비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내 유휴공간에 청년공유스튜디오를 조성하였으며 기관의 협조아래 1층 Book카페에 위치한 51평 부지에 팝업 스튜디오를 진행하였습니다.

3

####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실행

<청년사진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사진을 매개로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매 회차마다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참여하며,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운영했습니다.

월 1-2회 운영을 계획하여, 5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회는 (사)대구시민센터의 청년 Pre-job 사업 활동공유회 연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유튜브채널 아트비트와 협업을 통한 유튜브 창업 및 영상 프로그램, 동구청년센터 (the꿈)와의 협업을 통한 구직청년과 선(先) 입사자의 소셜다이닝(멘토링), 대구청년유니온과 함께 대학생들을 위한 쉬운 노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MYSC와 함께한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석, 청년창업자와 만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

#### 평가 및 피드백

지역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을 극대화한 활용으로 대구 공유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남대학교와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은 MOU 협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 인기가 좋았던 ‘공공기관 선(先)입사자와의 만남’을 확대한 5회차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진관 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매개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진전’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과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의제 실행

### 전체 일정 정리

#### 1. 영남대학교

회차	일정	행사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참여 학생 수
1	20.09.25	18:00 ~ 20:30	공공기관 신입사자와의 대화 -한국장학재단 신입사자와의 대화	한국장학재단 1층 북카페	6
2	20.10.30	18:00 ~20:30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유명 유튜브 채널(아트비트) 강의	한국장학재단 1층 북카페	3
3	20.11.10	18:00 ~20:30	대학생을 위한 쉬운 노무상담 -청년유니온과 연계한 대학생 알바노무상담	한국장학재단 1층 북카페	5
4	20.11.20	10:00 ~14:00	스타트업 경험하기 -임팩트스케일업 데모데이 참가를 통한 스타트업 데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
5	20.11.24	18:00 ~20:30	청년창업자와의 만남 -소셜벤처 청년창업자와의 대화	소셜캠퍼스온 10층 이벤트홀	4

#### 2. 대구시민센터

회차	일정	행사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참여 학생 수
1	20.08.13	15:00 ~ 18:00	상반기 Pre-job 성과 공유회	한국장학재단 1층 북카페	10
2	20.11.27	15:00 ~17:30	하반기 Pre-job 성과 공유회	소셜캠퍼스온 10층 이벤트홀	10

#### 3. 동구청년센터

회차	일정	행사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참여 학생 수
1	20.10.27	18:00 ~ 21:00	멘토식탁x청년사진관	한국장학재단 1층 북카페	20

####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회차	일정	행사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참여 학생 수
1	20.10.29	13:30 ~ 15:30	합창단 프로필 사진 촬영	학교밖청소년 연습실 (중구 달구벌대로 2109-21 4층)	22





#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

01. 의제 실행 성과

77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81P



01 의제 실행 성과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① 한국장학재단 내 유희공간(1층 북카페)를 활용하여 청년 공유문화공간 조성  
- 한국장학재단에서 유희공간인 약 51평의 1층 북카페
- ② 기관 (대구시민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영남대지역협력센터(LINC+) 동구청년센터(the꿈),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총 10,057,080원 예산 투입
- ③ 청년사진관 월별 행사 진행: 총 9회차
- ④ 구직청년 취업증명사진 이용자: 85명
- ⑤ 관련 기사 언론보도 총 8회



### 그 외 4곳 (브릿지경제, 이로운넷, 내외뉴스통신, 폴리뉴스) 기재

2020-08-03.~2020-10-06

1

####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 본격 추진

2020-08-17 <대구신문>



2

#### 한국장학재단, 청년사진관 운영 "취업 성공 응원합니다"

2020-08-18 <경북도민일보>



3

#### 한국장학재단에 '청년사진관' 생겨... 취업용 사진촬영 지원

2020-08-13 <뉴스1>



4

#### 한국장학재단, 청년의 건강한 사회진출 돕는 청년 사진관 운영

2020-08-13 <영남일보>



**cb 대구신문**  
HOME > 사회

###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청년사진관 :) 웃는 내.일.' 본격 추진

△ 조혜진 | ● 승인 2020.08.17 18:50

대구 지역의 청년들의 사회진입지원과 직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사진관 :) 웃는 내.일.'이 본격 추진됐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디딤네트워크(디딤네트웍스)와 손 잡고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청년사진관 :) 웃는 내.일.'을 시작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북카페를 청년 공유 공간 및 면접 스튜디오로 조성해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지원과 더불어 향후 5개월간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대표는 "지역의 민관협력으로 대구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고 취업준비 지원 비용절감 및 취업준비 호기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진기자 jhj1710@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  
HOME > 사회 > 일반

### 한국장학재단, 청년사진관 운영 '취업 성공 응원합니다'

△ 김민정기자 | ● 승인 2020.08.18

대구 본사서 취업용 사진 무료 촬영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운영 예정



한국장학재단(대구 본사)을 북카페에서 전환한 청년사진관 촬영 행사에서 대구시 청년 프리잡(Pre-Job) 사업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취업용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대구 동구 신암동에 본사를 둔 한국장학재단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무료로 취업용 사진을 찍어준다.

18일 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매달 이 같은 내용의 '청년사진관 :) 웃는 내.일.'(이하 청년사진관)을 운영한다.

첫날인 지난 13일에는 대구시 청년프리잡(Pre-Job) 사업에 참여한 청년 15명이 취업용 사진을 찍었다.

청년사진관은 대구 동구 신암동 본사 1층 북카페를 '이동형 스튜디오'로 활용, 오는 12월 까지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비용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및 대구시 등이 지원한다.

또 취업용 사진 촬영에만 그치지 않고 장학재단 신입 직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과의 멘토링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청년사진관에 '웃는 내.일'이라는 부제목을 단 것은 '좋은 일(자리)을 버리는 청년의 마음'과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응원'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1**  
사회 > 교육

### 한국장학재단에 '청년사진관' 생겨...취업용 사진촬영 지원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운영  
19일뉴스1.com 기자 | 2020-08-13 16:25 뉴스1



18일 한국장학재단 대구본사 1층 북카페에 마련된 '청년사진관: 웃는 내.일.'에서 대구시 청년 프리잡(Pre-Job)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취업용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뉴스1

한국장학재단이 13일부터 청년들에게 취업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청년사진관 :) 웃는 내.일.'(청년사진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본사 1층 북카페를 '이동형 스튜디오'로 활용해 이날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운영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공간으로 본사 1층 북카페를 제공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대구시 등은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사진관은 청년들의 취업용 사진 촬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 사진 촬영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신입직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과 멘토링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첫날인 이날에는 대구시 청년프리잡(Pre-Job) 사업에 참여한 청년 15명이 취업용 사진을 촬영했다. 지역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층의 취업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사에 참여한 이주연씨는 "프리잡 사업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도 감사했는데, 청년사진관에서 취업용 사진을 촬영하니 나를 응원해주는 마음이 느껴져 소중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장학재단, 청년의 건강한 사회진출 돕는 청년 사진관 운영

19일뉴스1.com 기자 | 2020-08-13

민관협업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용 사진촬영 지원 본사 1층 북카페 '이동형 스튜디오'로 활용, 매월 1회 운영



한국장학재단(대구 본사)을 북카페에서 전환한 청년사진관 촬영 행사에서 대구시 청년 프리잡(Pre-Job)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취업용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상우·이하 재단)은 13일 재단 본사 1층 북카페에서 청년 취업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청년사진관 :) 웃는 내.일.'(이하 청년사진관)의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사진관이 문을 연 첫날인 13일에는 15명이 참여해 취업용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은 한·Pre-Job 사업(지역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층 취업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 상반기 활동을 종료한 청년들이다.

재단은 문에 필요한 공간으로 본사 1층 북카페를 제공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시 등 협업 기관은 비용을 지원하며,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주연씨는 "Pre-Job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도 감사했는데, 청년사진관에서 취업용 사진을 촬영하고 보니 나를 응원해주는 마음이 느껴져 소중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청년사진관은 청년들의 취업용 사진 촬영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여기에 더해 취업용 사진 촬영에만 그치지 않고, 재단 신입직원이나 타 공공기관 취업선배들과의 멘토링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사진관에 '웃는 내.일'이라는 부제목을 단 것은 '좋은 일(자리)을 버리는 청년의 마음'과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응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박종우기자 kjm@yeongnam.com

##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